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에 대한 제언

- 중국 산동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순*·유하**

- 목 차 -

Ⅰ. 서론
Ⅱ. 쓰기의 격식성과 격식성의 구성 요인
Ⅲ. 중국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실태
Ⅳ.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의 실제
Ⅴ. 결론

|국문초록|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문어와 구어의 다른 특징이 간과된 채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국어 화자의 능숙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글의 목적에 맞게 격식을 지키고 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문어 능력과 격식에 부합하는 쓰기 능력 구성 요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의 격식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여 구어와 문어 능력이 조화된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교수 학습 과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교수
**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정을 제시한다. 중국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차시의 격식적 글쓰기 수업안을 구성하며, 첫 번째 차시는 문어 인식 수업으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고 두 번째 차시는 격식적 글쓰기 수업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다. 최근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격식적 글쓰기 능력의 구성 요건을 제시한다는 점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구어, 문어, 한국어 교육, 문어 능력, 격식, 글쓰기 능력, 격식적 글쓰기

Ⅰ. 서론

한국어 교육은 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어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중급 단계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보고서, 논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용하는 문체도 구어와 다르다. 따라서 중급 단계 이상이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별도의 글쓰기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에도 나타나 있다.

<표 1>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1)]

등급	평가 기준
3급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표 2>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

문항	평가 범주	평가 내용
53-43	언어사용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위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어와 구어를 구별하는 능력과 글에 따라 격식에 맞추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어 중심의 말하기·듣기 수업만이 이루어질 경우 문어와 괴리가 생기게 되고, 격식적인 글을 말하듯이 쓰게 되어 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워진다. 또한 문어가 가진 속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글에서 구어적이거나 격식에 어울리지 않은 문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글의 격식을 고려한 글쓰기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대부분은 별도의 격식적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구어와 문어는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간과된 채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다보니, 쓰기 수업 비중이 높지 않을뿐더러 학생이 비문을 쓰거나 구어를 사용해서 글을

1)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공지에서 문어 또는 문어 관련 부분을 발췌함.
(http://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1#none)

써도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교사의 쓰기 능력과 태도 등에서도 격식적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고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격식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배양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문어를 분리하여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의미에 대해 문어와 구어가 각각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국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익히고, 격식적 글을 쓸 때 이를 반영하여 언어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의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한국어 쓰기에서 격식성의 개념과 구성 요인을 살핀 뒤 중국 대학의 한국어 쓰기 교육 실태 분석과 그 실례로서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의 쓰기 자료 분석을 통해 문어 인식과 격식적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 다음으로 문어 인식 및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되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쓰기의 격식성과 격식성의 구성 요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구어와 문어를 구분할 수 있고, 글의 격식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평가 요소는 구어와 문어가 구분되며 글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어의 개념과 글의 격식의 구성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지는 않다. 이 장에서는 구어와 문어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문어의 특징을 살피고, 글에서 격식의 개념과 격식성의 구성 요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구어와 문어의 사전적 정의

가. 표준국어대사전[2)]

ㄱ. 구어: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

ㄴ. 문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문장에서만 쓰는 말

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3)]

ㄱ. 구어: 직접 입으로 주고받는 말. 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이른다.

ㄴ. 문어: 글에서만 쓰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

구어와 문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구어와 문어는 말과 글 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라는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어와 달리 문어는 일상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글 또는 문장에서만 쓴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 시험의 평가 내용에서는 구어와 문어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TV 토론과 같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논증적인 구조의 문장을 말로 했을 때는 이를 구어와 문어 중 어디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선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판(http://stdweb2.korean.go.kr)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 온라인 판(http://dic.daum.net)

명하지 않다.

문어와 구어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장경현[4]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문어와 구어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거나 구분하지 않아 담화·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김미형[5]에서도 구어와 문어의 구분 기준이 간명하지 않다며, 구어는 말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이고, 문어는 글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한 언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 의한 구분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어와 문어의 특징을 통해 구어와 문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와 문어에 대한 개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텍스트를 통해 제시하거나 학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구어와 문어의 본질적인 속성은 언어 사용 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서, 공간적 요건에서 언어 상황이 구어는 상황 의존적이고 문어는 탈상황적이며, 시간적 요건에서 발화 순간에 구어는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문어는 그렇지 않으며, 의도성 요건에서 구어는 화자와 청자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지만 문어는 작가가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여 잘 짜인 내용을 드러낸다.[6] 이와 같이, 구어와 문어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경현[7]에서는 문자 발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4) 장경현, 「문어/문어체, 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제13호, 한국어의미학회, 2003, 143~165쪽.
5) 김미형,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제15호, 한말연구학회, 2004, 25~28쪽, 37쪽.
6) 김미형, 앞의 논문, 37쪽.
7) 장경현, 앞의 논문, 151~157쪽.

(2) 문자 발화의 특징

가. 잉여성과 문장 확대: 장식적·우회적 표현 및 늘어난 구조의 문장 종결부 사용

나. 격식성: 잉여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문장의 요소들을 생략하여 발화 수용자에게 해석의 부담을 안기지 않는 표현을 사용

다. 관습화된 어휘 사용: 특수한 장면에서의 관습화된 어휘 사용

라. 특수한 문형: 관습적인 양식에 따른 특수한 문형 사용

또한, 구어와 문어 모두 언어 구성 단위 중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형의 특징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은아[8]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문형을 비교하여 문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형 사용에서 구어는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가 생략된 '생략형' 문형의 실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문어는 문장 성분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완성형' 문형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문형의 사용 빈도에서 구어는 '(주어)+서술어' 문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문어는 '주어+서술어' 문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문어는 문장 성분 특히 주어가 갖추어지는 점이 구어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가 글을 쓸 때 문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격식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므로, 문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논의는 글의 격식과 결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의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의 평가 내용에 따르면, "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라는 기준이 제시된다. 글의 격식이란

8) 서은아, 「구어와 문어의 문형 연구 :단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24호, 한국어학회, 2004, 99~129쪽.

글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의 목적을 국어 교육의 내용 영역 체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3)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내용 체계

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

나. 설득하는 글

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위와 같은 내용 체계에 따라 글은 논증문, 설명문, 보고서, 자기소개서 등과 같은 구체적 유형의 글로 나뉘게 되고, 각 유형에서는 글의 목적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형식을 장르라 부르고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장르 중심/기반 접근법을 사용한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목적 지향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연구로서 이은영[9], 김정숙[10], 김정남[11], 박기영[12] 등이 있으며, 김영미[13]에서는 유학생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에서 장르 기반 접근법을 적용한 쓰기 수업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장르는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언어의 기능적 측면과, 생산된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장르를 쓰기 교육에 적

9) 이은영,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구 1-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13권 3호, 대한언어학회, 2005, 1~16쪽.

10) 김정숙,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2007, 35~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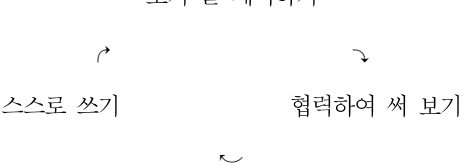
11) 김정남, 「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 『텍스트언어학』 제24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8, 1~26쪽.

12) 박기영,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4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 103~126쪽.

13) 김영미,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장르 기반 접근법으로」, 『한국어 교육』 제2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87~123쪽.

용한 모형이 장르 기반 쓰기 과정이다.

(4) 장르 기반 쓰기 단계의 순환



학습자는 장르 중심 쓰기의 첫 단계인 '보기 글 제시하기'에서 장르와 관련된 언어적 특성과 구조를 공부한다. 즉, 텍스트에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과 같은 언어적 특성과 문장의 표현 방식 등 문법적 사항과 같은 구조를 학습하는데[14],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적 특성과 구조를 글의 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상의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문어의 개념과 특징, 글의 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문어와 격식의 개념

가. 문어: 필자가 주장하거나 설명하거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논증문,

14) 김영미, 앞의 논문, 93~95쪽.

15) 글의 격식은 모든 글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LI YAN·김정남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 마지막 작문 문항의 모범 답안이 모두 주장하기 장르에 포함되는데, 주장하는 글은 담화 구조의 관점에서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며, 서론의 전개 방식은 '사례를 들면서 시작하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기', '대립되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기', '주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시작하기'로 정리되고, 본론의 전개 방식은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의 세 가지로 제시되며, 결론의 전개 방식은 '본론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기'와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기'로 정리된다고 하였다.(LI YAN·김정남,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위한 제안 -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작문 문항의 '주장하기' 글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36호, 텍스트언어학회, 2014, 287~321쪽.)

설명문, 감상문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

나. 격식: 논문, 학술 보고서, 연구 계획서, 이력서, 취업 자기소개서, 신문 칼럼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글에서 지켜야 하는 형식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국어 화자의 능숙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글의 목적에 맞게 격식을 지키고 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문어 능력과 격식에 부합하는 쓰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구성할 수 있다.[16]

(6) 한국어 학습자 격식적 글쓰기 능력 요건

가. 문장 측면

ㄱ.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의 필수성분이 갖추어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ㄴ.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지시·대용 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ㄷ. 글의 목적과 맥락에 부합하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문 규범에 맞게 쓸 수 있다.

나. 글의 구조 측면

ㄱ.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다.

16) 본고에서 제시하는 격식적 글쓰기 능력은 문장과 글의 구조 구성 측면에 국한된 것으로서, 쓰기 능력 전반 즉 스키마 활용, 고쳐 쓰기 능력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ㄴ.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다.

ㄷ.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의 개요를 구성할 수 있다.

ㄹ. 각 문장과 단락을 적절한 담화 표지 등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를 검토하여, 중국 내에서 문어 및 격식적 글쓰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식적 글쓰기 능력 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Ⅲ. 중국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실태

1.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과정 분석

의사소통 능력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기능으로 구성되므로, 한국어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능들이 균형 있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내 한국어 수업은 대부분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업 시간에 활동한 대화 내용을 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다.

먼저, 중국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배정 실태와 비중을 분석하겠다.[17] 중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

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1학년과 2학년 4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수업을 실시한다.[18] 그러나 각 영역별 한국어 수업의 비중이 동일하지 않다. 듣기와 말하기 수업은 필수 과목으로 1학기부터 최소한 4학기 동안 주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배정되는 데 비해 쓰기 수업은 대부분 5, 6학기에 주 2시간씩 배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 남경 대학의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은 1학기부터 6학기까지 주 2시간씩 배정돼 있는 반면에 한국어 쓰기는 3, 4학기에만 배정돼 있다. 또, 쓰기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중국 북경 대학에서는 1학기부터 4학기까지 한국어 듣기·말하기 통합 수업이 주 4시간씩 배정돼 있는 데 비해 쓰기는 선택 과목인 '한국어 실용문 글쓰기'만 8학기에 배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 3>은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례로서 산동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을 제시한 것이다.

17) 중국의 대학(4년제 대학을 가리킴)을 영역으로 구분하면, 종합 대학, 이공계 대학, 사범 대학, 외국어 대학 등이 있고,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해안도시 대학, 내륙 대학 등이 있다. 각 대학은 실정에 따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은 공무원, 대(영)사관, 외자 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해변 도시 대학들은 해양 관련 업무, 관광업, 중한 무역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설정되는 특색 과목은 소위 과학 한국어, 관광 한국어, 무역 한국어, 해양 한국어 등과 같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기본 과목 설정은 오히려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인재 양성 방안을 수정할 때마다 타 대학의 과목 설정 방안을 분석하고 참고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18) 이 과목들은 '전공 기초 과목'에 속한다. 전공 기초 과목의 중요성은 전체 이수 시간의 60%를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들은 보통 3, 4학년에 배정되는데 비교적 높은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 때 주로 언어학, 한국 문학, 한국어 개론, 한국 역사, 중한 관계사 등 이론 수업과 통·번역, 무역 한국어, 관광 한국어 등 실습 중심 수업을 받는다.

<표 3>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 한국어과 교육과정

필수 과목	학점	총 이수 시간			학기								평가 방식
		이수시간	수업	실험실천	1	2	3	4	5	6	7	8	
					20주	20주	20주	20주	20주	20주	20주	20주	
기초한국어	20	410	410		6	6	6	6					시험
고급한국어	8	144	144						4	4			시험
한국어말하기	12	216	216		2	2	4	4					시험
한국어듣기	16	280	280		4	4	4	4					시험
한국어읽기	4	72	72		2	2							시험
한국어쓰기	4	64	64						2	2			시험
한국어언어학	2	32	32							2			시험
번역	4	72	72						2	2			시험
한국문학	2	32	32						2				시험
한국어개론	2	32	32							2			시험
통역이론및실천	2	32	32								2		시험
논문작성	1	16	10	6								1	고찰

학점 및 이수 시간을 살펴보면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의 1/4~1/3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 한국어>와 <고급 한국어>는 네 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으로서 읽기 내용을 많이 포함한다. 다른 과목들도 모두 일정한 읽기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의 읽기 활동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쓰기 과목에 배정돼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또한, 6학기와 7학기 두 학기를 거쳐 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글쓰기가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된 학습자들에게 구어와 문어의 구별을 인식시키는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 중국인 한국어 학습 대학생의 글쓰기 실태 분석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글쓰기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글쓰기 실태 조사는 중국 산동과기대의 한국어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과 학생 2학년생과 3학년생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했다.[19] 본고에서는 중국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문장 측면'과 '구조 측면'에서 제시하겠다. 먼저, 문장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20]

첫째, 구어 어미를 주로 사용한다. 구어에 사용하는 연결어미나 조사가 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7) 가.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샤브샤브를 먹곤 했다.
나.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
다. 그는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첫인상을 남겨준다.

예문 (7)과 같이 '-와/과'를 '-하고'나 '-(이)랑'으로 표현하거나 '-으므로'가 격식에 적절한 표현인데도 어미 '-(으)니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멋있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첫인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한다. 말하기·듣기 수업에서 구어인 대화

19) 중국 대학에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의 전공 수업이 배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학과에서 1년 반 정도 공부한 학생은 중급(3, 4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2학년 1학기 학생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과 3학년생의 쓰기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 아래 예로 살펴볼 내용들은 단순히 사전적 개념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글쓰기의 유형과 문맥도 함께 고려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일러둔다.

체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며, 더욱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격조사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8) 언어 창조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요. 그럼 사람이 언어 사용할 때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새 단어 창조해요.

예문 (8)은 중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의 문장은 필수성분과 조사를 갖춘 즉 격식적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나, 중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에서는 위와 같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들이 다수 발견된다.

셋째, 구어체 어휘를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날마다'나 '매일'을 사용하지 않고 '맨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9) 가. 고3 때 나는 맨날 공부만 했다.
나. 유망 직업은 환경오염이 적고 지구가 오래오래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좀 참고 그냥 용서하는 것이 좋다.
라. 돈이 많이 있어도 막 쓰지 말고 좀 아껴서 써야 한다.

예문 (9)의 사례들은 중국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종종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에도 "아침을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가 글의 격식적 특성에 부합한 표현인데, "아침을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와 같이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글에 그대로 옮겨 쓴 경우가 발견된다. 특히, 중국인 학

습자들은 구어성 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문 (9나, 다, 라)과 같이 '오래오래', '좀', '많이', '너무너무', '그냥', '막' 등과 같은 정도 부사가 학습자의 글쓰기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장감을 돋우기 위해 정도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현이 학습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구어적인 절이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의미가 같은 내용들이 한 문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짜임새를 갖추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 가. 뛰어난 자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부자되기는 어렵다.
나. 일을 기쁘게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예문 (10가)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이 문맥과 격식에 부합하는 문장인데, 이를 "살아갈 수 있-"라고 쓰거나, (10나)에서 "일에 대한 열정"이 적절한데 "일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어휘적인 차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더 쉽게 습득하기 때문에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우선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며, 수업 중에 사전을 활용하다 보니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1) 가. 간접 화문에서 위 예문 ㄱ, ㄴ과 같이 말하면 괜찮지만 ㄷ처럼 쓴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된다.
나. 배우는 만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나 그냥 배

운 것을 변통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 실패가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예문 (11가)과 같이 '대화문'을 '화문'으로 쓰거나, 예문 (11나)의 '변통하다'처럼 사전에서 찾은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11다)와 같이 '스승'이나 '교직' 대신에 '선생님'을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구어 사용의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쓰기를 위해 어휘를 모색하는 중 구어나 부적절한 한자어를 사전에서 찾아 사용한다는 점에서 폭넓게 보면 격식에 부합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의 글쓰기를 검토를 통해 중급 이상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어를 글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글의 유형과 구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학습자의 글쓰기에서는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들도 찾을 수 있다.

(12) 중국인 학습자의 격식적 글 사례

가.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있고 사회 지위가 높은 직업도 있다. 나는 직업이 귀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적성에 잘 맞고 이 직업을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서론) -중략-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취직자들의 경쟁도 강열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취직자들의 학력과 소질 요구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하는 직업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질을 제고해야 한다.(결론)

나. 사람마다 다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자가 되려면 일단 자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없으면 아무일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서론)

부자가 되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버는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많이 저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관념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계획적으로 지출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해서 돈을 벌곤 한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본론 일부)

두 제시문은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 한국어학과 3학년 학습자 글쓰기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21] (12가)의 제목은 '나의 직업관'이고, (12나)는 '부자가 되는 법'이다. 학습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사용하는 문법과 어휘도 다양하지만 글의 구조 측면에서 격식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21) 해당 글은 필자가 한국어 교육을 하며 수집한 쓰기 자료로 비교적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의 글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문장 측면의 오류도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12가)는 '나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에 맞게 서론에서는 주제와 쓰게 된 이유 등을 간략하게 쓰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직업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론에서 학습자는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서론의 마지막 문장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결론에서도 학습자는 본론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점도 보인다.

(12나)는 '부자가 되는 법'을 주제로 쓴 글의 서론과 본론 첫 번째 문단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단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전개해야 하는 내용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가 서론과 본론의 역할과 구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한 오류로 보인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서론과 본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적절한 담화 표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짜임새를 갖추지 못하고 내용들이 서로 단절돼 있다. 정해진 분량 안에 주장을 내세우고 근거를 제시하는 전개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글의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오류는 쓰기 수업에서 오류 수정이나 다시 쓰기 활동 등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대학에서의 글쓰기 오류 수정은 문장 고치기에만 국한되고 구조적 수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2]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있어 정확한 문법과 어휘의 사용에만 치우치는 반면에 담화 구조와 전개 방식을 소홀히 하

22) 글쓰기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어 글쓰기의 구조적 문제는 모국어 글쓰기의 전개 방식 및 문단 구성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 있으며, 교수자의 피드백 역시 글쓰기의 구성에 주의를 돌리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가 구어를 글에 사용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환경 측면에서 초급 학습자는 언어 수준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대신에 교과서에 의존하여 쓰기 활동을 하는 반면에, 중급 이상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일정한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훨씬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면서 구어에 익숙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이 쓰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규 교육 과정 측면에서 수업 중 대화 장면이 등장하는 시청각 매체들을 선호하는 것이 쓰기에 있어서 구어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학에서 문어나 격식적 글쓰기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글쓰기 평가 시간에 교수자는 종결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의 수정에 국한되어 있다.

Ⅳ.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의 실제

격식적 글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의미이지만 말과 글에서 다른 어휘를 사용할 때도 있고 다른 구조의 문장을 사용할 때도 있다. 또한 대화에 사용할 때는 자연스러우나 글에 사용하면 어색해지거나 그 반대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대화 구성 능력뿐만 아니라 격식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여 구어와 문어 능력이 조화된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교수·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구어와 문어의 특징을 한국어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박희영[23]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상호 보완하는 한국어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상호 보완하는 방법으로 언어 교수법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 교수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황인교[24]는 구어 교수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의 특징과 구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살폈고 구어 교수의 원리와 지도법을 듣기와 말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와 관련하여 문금현[25]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본문은 한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어 텍스트(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한국어 구어의 특징을 반영한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구어 어휘의 특징을 활용한 어휘 및 표현에 대한 교육 방법과 학습해야 할 목록을 학습 단계별로 선정했다. 이어 문금현[26]에서는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구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의 본문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과의 실제 대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재의 문체나 표현이 한국인의 실제 구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효상[27]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이 구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고

23) 박희영, 「'구어와 문어를 상호 보완하는 한국어' 문법 수업 모형」,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173~194쪽. 이 연구에서는 구어와 문어 교육을 함께 다루기 위해 전래동화를 이용하였으나 학습자들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목적을 둔 것이다.

24)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2 :구어 교수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83~301쪽.

25) 문금현,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21~61쪽.

26) 문금현, 「구어 중심의 한국어 교재 편찬 방안에 대하여」, 『한국어교육학회지』 제105호, 한국어교육학회, 2001, 233~262쪽.

하면서 구어 현상의 '-아/어 가지고'의 '-아/어서'의 교체 현상, 격조사 비실현/생략 현상, '-(으)려고 하다'의 '하다'가 '그렇다'로 교체 되는 현상 등을 살펴보았다. 조성문[28]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근거로 하여 7개의 한국어 초급 교재 의 기초 어휘가 잘 선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 구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뭉치 자료를 근거하여 어휘와 문법 항목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 초창기에 지나치게 문법을 중시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회화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 한국인의 발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구어와 문어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정형적인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 구어 중심의 교육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구어 중심 교육이 격식적 글 구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격식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글에 사용되는 문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격식적 글쓰기 교육 방안으로서 중국 내에서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차시 분량의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첫 번째 차시인 문어 인식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으로, 두 번째 차시인 격식적 글쓰기 수업은 과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였다.[29]

---

27) 이효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제1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241~270쪽.

28) 조성문, 「구어 말뭉치에 의한 한국어 초급교재의 어휘 분석」, 『한민족문화연구』 제17호, 한민족문화학회, 2005, 259~286쪽.

29) 교수·학습 과정안은 부록으로 제시하며, 교실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구어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부록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은 본고 본론의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업 변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어 본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과 순서 등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어와 구어 인식 교수·학습 방안

문어 인식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론하게 한다. 먼저 같은 내용의 구어 문장과 문어 문장을 보이고 학습자들이 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두 문장의 차이점을 추론하게 하고 글에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글에 주로 사용하는 문어가 있음을 알린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로부터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수업을 통해 "문어를 이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이끌어 낸다.

전개 단계에서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과 각각의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제시문은 동일한 주제이지만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첫 번째 제시 활동에서는 대화 상황을 주고 그 속에서 구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인다. 두 번째 제시 활동에서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문어에서 다른 어휘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구어를 문어로, 문어를 구어로 바꾸는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연습 문제는 조사나 어미 위주의 문체 변환보다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평소에 잘 못 쓰기 쉬운 구어 문장을 문어 문장으로 바꾸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문보다는 일정한 주제를 가진 한 단락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방송 자료를 보고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읽기 자료만 읽히거나 청각 자료를 들려주기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이 보고서나 논문 발표, 연설과 같이 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방송 뉴스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 일반인이 구어로 말하고 이를 방송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한 방송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 자료 이용을 제안한다. 일반인이 뉴스 인터뷰를 할 때는 구어를 사용하는데, 방송 자막에서는 이를 그대로 녹취·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과정을 거쳐 문어화하여 방송 자막으로 송출하므로,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활동은 먼저 TV 뉴스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이고, 화면 하단의 자막과 비교하며 말과 글에서 달리 사용되는 어휘를 찾게 한다. 그리고 찾은 어휘를 사용하여 짝과 간단한 대화를 구성하게 하고 이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작성하게 하여, 같은 내용이라도 말과 글에서 문장이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을 익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수업이 끝난 뒤 학습자들이 글을 쓰며 문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정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활동을 정리한 뒤 다시 구어와 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에게 오늘 학습 목표에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과제는 학습자들에게 구어 중심으로 작성된 자기소개 내용 일부분을 나누어주고, 문어로 구성한 자기소개서로 바꾸어 작성해 오게 한다.[30] 자기소개서를 문어로 바꾸는 과제 활동은 학습자에게 한국어 강의실 내에서만

30)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제출할 기회가 많은데, 자기소개서 중 대부분은 구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생활로 전이되고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3) 문어 인식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도입	• 출석 확인 및 전시 학습 확인 • 학습 동기 유발 -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 같은 내용으로 쓰인 구어 문장과 문어 문장을 보인다. - 학습자들이 차이점을 찾게 한다. - 몇 어휘가 구어 문장과 문어 문장에서 달리 쓰인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달리 쓰는 어휘가 있음을 알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교사: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하면 한국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학생: 네, 보고서를 쓰면 교수님이나 한국 친구들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해요. 교사: 그래요, 보고서 같은 글을 쓸 때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A 씨가 작성한 글을 볼 거예요. 학교에서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교사: 어떤 내용이에요? 학생: 이야기할 한국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교사: 그럼 같은 내용을 한국 학생이 적은 글을 읽어 보세요. 학교에서 한국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교사: 어떤 내용이에요? 학생: 이 문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교사: 네, 그래요. 그럼 두 문장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학생: '하고'가 '가'로 바뀌었어요. '얘기'가 '대화'로 바뀌었어요. '없어요'가 '없습니다'로 바뀌었어요. 교사: 그래요. 한국어에는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 차이를 배우기로 해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로 보고서를 쓸 때와 시험을 볼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구어 문장과 문어 문장	5분
전개 1	• 제시 활동 1 - 학습자에게 대화에서 문어가 쓰인 제시문을 읽히고, 어색한 부분을 찾게 한다. - 문어가 쓰인 대화문을 구어로 바꾸고 다시 대화문을 읽게 한다. • 제시 활동 2 - 학습자에게 시험 답안에서 구어가 쓰인 제시문을 읽히고, 어색한 부분을 찾게 한다. - 구어가 쓰인 시험 답안을 문어로 바꾸고 다시 제시문을 읽게 한다. 교사: 먼저, 다음 제시문을 읽어 보세요.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대화 제시문 문어 제시문	12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 간

<A가 친구에게 여행 다녀온 뒤 이야기를 하는 상황>
B: 어제 누구랑 놀러 갔어?
A: 응, 미진이와 함께 갔어.
B: 여행은 어땠어?
A: 아주 아름다운 경치였어.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었어.
B: 선생님은 함께 안 가셨어?
A: 그는 수업이 있어서 함께 못 가셨어.

교사: 무엇을 하는 상황이에요?
학생: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사: 어떤 내용이에요?
학생: 여행 갔다 온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사: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색한 곳이 있어요?
학생: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와, 아름다웠어, 즐거워, 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교사: 네, 맞아요. 노래 가사에는 많이 나오지만, 말을 할 때는 잘 안 써요. 이런 어휘들은 이렇게 바꿔야해요.

미진이와 → 미진이하고/랑　　아름다운 → 좋은
즐거운 → 재미있는　　그 → 선생님

교사: 그러면, 상황에 맞게 바꾼 제시문을 읽어볼까요.

B: 어제 누구랑 놀러 갔어?
A: 응, 미진이하고 함께 갔어.
B: 여행은 어땠어?
A: 경치가 아주 좋아서 재미있었어.
B: 선생님은 함께 안 가셨어?
A: 선생님은 수업이 있어서 함께 못 가셨어.

교사: 잘 읽었어요.
교사: 그 다음 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대학 신문에 여행소감문 내기>
제목: 가을 여행을 다녀와서
저는 어제 친구랑 가을 여행 다녀왔어요. 가을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재미있었어요. 한국어 선생님 같이 못 가서 아쉬웠어요. 다음엔 꼭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네, 잘 읽었어요. 어디에 글을 내요?
학생: 대학 신문에 글을 내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학생: 친구랑 말하듯이 글을 적었어요.
교사: 그래요. 신문에 글을 쓸 때는 말하듯이 적으면 안돼요.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 다른 어휘를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어떤 것이 어색한지 같이 찾아볼까요?
학생: (제시문에서 어색한 부분 찾기 활동)
교사: 어떤 부분들이 어색해요?
학생: '-요'로 끝내고 있어요. 문장이 너무 짧아요. 말 하듯이 썼어요.
교사: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글을 쓸 때는 조사를 꼭 써야 해요. 그리고 문장을 끝낼 때 '해요'를 쓰지 말고 '하다'나 '합니다'로 쓰세요. 그러면, 바꾼 어휘로 다시 읽어볼까요.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최근에 친구와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가을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여행이 즐거웠다. 한국어 선생님과 같이 못 가서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전개 2	• 구어-문어 변환 연습 활동 - 학습자에게 제시문의 구어 문장을 문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 문제를 풀게 한다. 교사: 이제 주로 말을 할 때 쓰는 문장을 글을 쓸 때의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봐요. 언어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단어는 사람이 생활 중 많이 발명했어요. 언어 창조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요. 그럼 사람이 언어 사용할 때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새 단어 창조해요. 교사: A 씨가 연습 문제 푼 것을 발표해 볼까요? 학생 A: 저는 이렇게 고쳤어요. "언어에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인간이 생활을 하다보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단어가 없으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불편하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한다." 교사: 네, 아주 잘 고쳤어요.		8분
전개 3	• TV 인터뷰 이용한 구어-문어 비교 활동 - 학습자에게 TV 뉴스에서 일반인 인터뷰 내용을 보이고, 말과 자막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를 찾게 한다. • 대화 구성 및 편지 쓰기 활동 - 말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구성하게 한다. -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쓰게 한다. 교사: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거예요. 화면 밑에 인터뷰 내용이 쓰이는데, 말과 글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학생: (TV 뉴스의 일반인 인터뷰를 시청하며 말과 글에서 달리 쓰인 단어를 찾는다.) 교사: 다시 한 번 볼 테니 잘 찾아보세요. 교사: 짝꿍끼리 찾은 단어를 비교해 보세요. 교사: 다음 활동은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짝과 함께 TV 인터뷰와 같은 주제로 인터뷰하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의 학생이 기자이고, 왼쪽의 학생이 시민이에요. 교사: 대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대화 내용을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편지를 써보세요.	TV 뉴스 인터뷰 자료	20분
정리	• 학습자 활동 정리 - 학습자 중에서 2~3명을 선정하여 활용 단계에서 활동한 결과를 발표시킨다. - 발표 내용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 구어 문장과 문어 문장이 각기 달리 쓰일 수 있음을 다시 인식시킨다. • 과제 제시 - 학습목표와 관련한 과제로, 구어로 쓰인 자기소개서의 일부분을 문어의 자기소개서로 고쳐 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 수업 마무리	과제 유인물	5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교사: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요. A 씨가 활동한 것을 발표해 볼까요? 학생 A: 과제 활동 결과 발표 교사: 네, 잘 했어요. 그리고 편지로 쓴 것을 B 씨가 다시 발표해 볼까요? 학생 B: 편지 내용 읽기 교사: 네, 잘 읽었어요. ( ) 부분을 아주 잘 바꿨어요. 그런데 ( ) 부분은 ( )로 바꾸는 것이 더 좋아요. 교사: 오늘 수업은 한국어에서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달리 쓰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과제는 행정실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로 바꾸어 오는 거예요. 자신에 맞게 바꿔 써도 좋아요. 수업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2.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2차시에서는 문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을 전개한다. 보고서는 연구하거나 실험한 내용을 담는 글쓰기 형식으로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이 보고서 형식에 맞게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화제인 '한국 문화'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친숙하고 별도의 자료 조사 없이 수업 시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업은 과제 중심 교수법으로 이용하되 쓰기 전, 쓰기 그리고 쓰기 후 단계로 구성하며, 쓰기 전 단계는 보고서의 구성 및 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활동으로, 쓰기 단계는 서론, 본론, 결론의 요점 작성과 조 활동으로, 쓰기 후 단계는 쓰기 단계의 결과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과 수업 정리로 전개된다.

교수자는 1차시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확인하는 동시에 보고서를 쓸 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본 차시의 수업 내용 및 목적을 도출한다. 그리하여 교수자는 자연스럽게 보고서의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고서 형식의 중요성

을 인식시킨다. 각 구성 요소의 형식과 들어갈 내용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표지-차례-본문-참고문헌'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흥미를 느껴 질문을 하게 하면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게 유도한다.

쓰기 단계에서는 쓰기 전 단계에서 제시된 보고서 작성 방법에 따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각각 서론, 본론, 결론의 요점을 쓰게 한다. 쓰기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들을 나누게 한다. 교수자는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채우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한 형식과 표현들을 활용하여 각각 서론, 본론, 결론을 간략하게 쓰고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주제에 관련하여 확장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학습자들이 쓰고 싶은 한국 문화의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각각 쓰게 하고 그중 단점을 바꿀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찾게 한다. 그 다음 서론, 본론, 결론의 요점을 정리해서 조 활동에서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적용해서 수정하게 한다.

쓰기 활동이 끝나고 교수자는 학습자 중에서 2~3명을 선정하여 조 활동 결과를 발표시키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그리고 쓰기 단계에서 작성한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완성하여 과제로 제출하게 한다.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보고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14)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간
쓰기 전	교사: 제시 내용을 다 읽었어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학생: 보고서의 형식이에요. 교사: 네, 그래요. 보고서의 구성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위와 같은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학생: 선생님, 차례와 참고문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사: 그래요. 차례는 목차라고도 하는데 본문 내용의 목록을 따로 빼내서 앞부분에 제시하는 부분이지요. 참고문헌의 형식은 다시 책과 논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문으로 보여 줄게요. 교사: 서론에 들어가는 주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생: 주제는 보고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목적은 보고서의 목표예요. 교사: 네, 잘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 부분에서는 보고서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서론의 작성은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학생: 짧아서 쉬운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서론은 본론보다 양이 적지만 보고서의 전체적인 체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써야 해요. 학생: 그런데 서론을 잘 쓰지 않으면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없어요.	교재 유인물	10분
쓰기	교사: 제시된 3개의 표현을 이용해 서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요? 학생: 나는 (한국의 군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주제로 쓰게 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예능/오락 문화)를 알고 싶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국의 여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교사: 여러분 다 잘했어요.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고찰할 기회는 별로 없었네요. 이번 기회로 깊이 있게 한국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교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관심들 많네요. 그렇죠? 학생: 네, 한국 드라마를 쓰려고 해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으니까요. 교사: 그래요, 선생님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흥미롭고 배우들도 아주 멋있죠? 학생: 맞아요. 웃기기도 해요. 교사: 그래요. 한국 드라마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가져다줬어요. 그런데 사물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요. 혹시 바뀌었으면 가는 점이 없나요? 학생: 아주 재미있지만 어떤 드라마는 우리의 삶과 달라요. 교사: 아,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잘 지적했네요. 교사: 그럼,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의 격식에 맞추어서 조별로 함께 모여 써보세요.	교재 유인물	30분
쓰기 후	<평가 기준> ① 글의 주제나 문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②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③ 이 글을 읽을 독자를 생각해 보았는가. ④ 내가 구성한 방법이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⑤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 표현에는 문제가 없는가.		10분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시 간
	⑥ 앞, 뒤 문맥을 고려하여 글을 썼는가. ⑦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는가.		

V.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 중급 단계 이상이나 학문 이수를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문어 교육도 중요하다. 문어와 구어는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간과된 채 학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중 학문 목적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격식적 글을 쓸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필자가 주장하거나 설명하거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논증문, 설명문, 감상문 같은 유형의 글을 이용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구성해야 하는데, 문어란 구체적인 글의 유형으로서는 신문 칼럼, 학술 보고서, 논문, 취업 자기소개서, 대학원 연구 계획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이러한 글의 유형에서 지켜야 하는 글의 형식을 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국어 화자의 능숙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며 글의 목적에 맞게 격식을 지키고 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문어 능력과 격식에 부합하는 글쓰기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격식적 글쓰기 능력 요건

가. 문장 측면

ㄱ.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의 필수성분이 갖추어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ㄴ.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지시·대용 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ㄷ. 글의 목적과 맥락에 부합하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문 규범에 맞게 쓸 수 있다.

나. 글의 구조 측면

ㄱ.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다.

ㄴ.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다.

ㄷ.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의 개요를 구성할 수 있다.

ㄹ. 각 문장과 단락을 적절한 담화 표지 등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격식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여 구어와 문어 능력이 조화된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했다. 중국 내에서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차시 분량의 격식적 글쓰기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했으며, 1차시는 문어 인식 수업으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였고 2차시는 격식적 글쓰기 수업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최근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변화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격식적 글쓰기 능력의 구성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전반을 분석하지 못한 점과 학습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판(http://stdweb2.korean.go.k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한국어대사전』온라인 판(http://dic.daum.net)

논문

구현정,「말뭉치 바탕 구어 연구」,『언어과학연구』제32호, 언어과학회, 2005, 1~20쪽.

김미형,「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한말연구』제15호, 한말연구학회, 2004, 23~73쪽.

김영미,「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장르 기반 접근법으로」,『한국어 교육』제2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87~123쪽.

김정남,「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텍스트언어학』제24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8, 1~26쪽.

김정숙,「읽기, 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이중언어학』제33호, 이중언어학회, 2007, 35~54쪽.

LI YAN·김정남,「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위한 제안 -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작문 문항의 '주장하기' 글을 중심으로」,『텍스트언어학』제36호, 텍스트언어학회, 2014, 287~321쪽.

문금현,「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한국어교육』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21~61쪽.

문금현,「구어 중심의 한국어 교재 편찬 방안에 대하여」,『한국어교육학회지』제105호, 한국어교육학회, 2001, 233~262쪽.

민현식, 「문법 교육의 표준화와 다양화의 과제」, 『국어교육연구』 제1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125~191쪽.

박기영,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4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 103~126쪽.

박희영, 「'구어와 문어를 상호 보완하는 한국어' 문법 수업 모형」,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173~194쪽.

서은아, 「구어와 문어의 문형 연구 :단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24호, 한국어학회, 2004, 99~129쪽.

안의정, 「말뭉치를 이용한 어휘의 구어성 측정과 활용」, 『어문논집』 제57호, 민족어문학회, 2008, 93~119쪽.

안주호, 「국어 문법교육에서의 구어자료 활용 방안」, 『현대문법연구』 제33호, 한국문법학회, 2003, 149~171쪽.

유혜원,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28호, 한국어의미학회, 2009, 147~169쪽.

이은영,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구 1-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13권 3호, 대한언어학회, 2005, 1~16쪽.

이효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제1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241~270쪽.

장경현, 「문어/문어체, 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제13호, 한국어의미학회, 2003, 143~165쪽.

조성문, 「구어 말뭉치에 의한 한국어 초급교재의 어휘 분석」, 『한민족문화연구』 제17호, 한민족문화학회, 2005, 259~286쪽.

한송화, 「기능과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 교육 :명령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289~313쪽.
황인교,「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2 :구어 교수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83~301쪽.

외국논문

易保樹, 羅少茜,「工作記憶容量對二語學習者書面語産出的影響」,『外語教學与研究』44(4) 2012, p. 536~546.
李紹林,「論書面語和口語」,『齊齊哈爾師范學院學報』, 1994年第4期, 1994, p. 72~78.
成方志, 張錦輝, 「用語篇分析理論談口語与書面語」, 『天津商學院學報』 24(1), 2004, p. 47~51.
王福生, 「對外漢語教學活動中口語和書面語詞匯等級的划界問題」, 『漢語口語和書面語教學-2002年國際漢語教學學術研究會論文集』, 2002, p. 47~59.
劉小蕾,「以中國學習者爲對象的韓國語書面語連接詞尾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Abstract>

Proposals for the Formal Writing Teaching and Learning of Chinese Learners in Korean Education

Jo, Kyeong-sun·Liu, Xia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but it is often the case that this characteristic is neglected in Korean education. Korean learners are required to develop the ability of skilled writing at the level of native speakers and thus need to develop the ability of keeping it formal according to the goals of texts and using written language properly. This study thus set out to propose writing abilities that would correspond with the written language skills and formality required from Korean learners and a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o help them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o develop Korean command of harmony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kills by cultivating formal writing abilities. The investigator devised a two-lesson formal writing teaching plan by taking the Chinese curriculum into account and made use of communication-based teaching methods in the first

lesson for written language perception and task-based teaching methods in the second lesson for formal writing. The study claims its significance by proposing a lesson plan that will meet the diverse needs of learners and the purposes of Korean education in recent year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written language in Korean education, and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formal writing abilities.

Key Words : written language, spoken language, Korean education, formal, writing abilities, formal writing

이 논문은 2015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5년 4월 18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4월 25일 게재 확정되었음.